

젓먹이때부터 英才教育

93.2.2

변화속의 日本

< 4 >

『3세면 이미 늦습니다. 이제 0세교육 시대입니다』 요즘 日本에서는 부인들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팸플릿이 날아들거나 전화가 걸려온다.

어린이 통신교육전문회사 구몬(公文)교육연구회는 작년초부터 東京과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縣을 수도권의 출산자후 부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 새로 설립한「0세班」의 회원모집을 위해서다. 잦아난 아기를 0세부터 만화책을 접합시킨 비디오를 제작, 공급하는 것이 이 통신교육의 중심이다. 『母子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는 0세부터 자연스런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아기를에게는 영상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구몬社 관계자는 말한다.

해「妊婦교실」에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들고 있는 것은「차차하더라도 0세교육을 겨냥한『젓먹이 산업』」이다.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번창하는 업종의 하나로 등장했다. 家庭맞 교육업체가 통신교육용 비디오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물론, 젓먹이용품 전문 백화점이 생겨났고 이같은 관련기업의 산출품은 이나 홍보팸플릿만을 전무으로 배달해주는 서비

생후 18개월까지 숫자 漢字 학습

엄마들 學院대기 시간마다 기저귀 교체

2~6歲 때 英語회화 : 국교생과 외 70%나

스노드(산업)다. 지바縣 사이타마縣을 중심으로 대규모 과외화원을 경영하는 야마다(山田)義塾은 생후 18개월까지의 교육과정을 최고 있다. 母子의 전폭방

드를 보이며서 단어를 반복시켜 일본말과 간단한 한자어를 익히게 한다. 젊은 엄마들은 기저귀 보파리를 들고 기다리다가 1시간반의 수업이 끝나면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리고 2~6세 아



日本에서는 어린이 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본의 한 어머니. <N+세공>

아교육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중학교 입시마저 가열되고 있는 일본의 치열한 입시전쟁 때문이기도 하다. 결혼 때문에 직업을 포기한 젊은 여성들이 또다른 「자기 실현」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혹사, 외국시킴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조기교육은 젊은 엄마들에 게 이미「종교」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제화와 정보화가 유아교육의 중심 테마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만이 아니다. 문부성은 지난해 국민학교 4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오사카(大阪)시립국민학교 두곳을 선전, 4학년은 연간 15시간, 5~6학년은 70시간씩 영어교육을 3년간 실시, 그결과를 봐서 이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오사카의 이들 국민학교는 종이와 연필을 일절 쓰지 못하는 철저한 듣고 말하기만의 영어교육을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문부성은 이와 함께 영재교육 조차위원회도 설치, 영재 교육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이같은 방침보다 한술 더떠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 개화, 메이지(明治)유신의 주역들을 많이 배출했던 구마모토(熊本)縣은 작년부터 국민학교 영어회화 교재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縣內 전체 국민학교에서 일제히 영어회화교육을 시작했다. 우쓰노미야(宇都宮)市는 그동안 중학교에만 과전했던 美國人 영어교육 강사를 작년부터 국민 학교에도 과전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의 영어 교육 시장이 3조엔 규모로 성장했다.

학교교육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국민화성을 가운데 두는 과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7할이 나 된다. 영어회화 컴퓨터 학문 산수 수형 피아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처럼 신선했던 조기 교육의 결과로 「국어」는 「文科」理科냐의 선택은 중학교 2학년까지가 岐路라는 새로운 말까지 나오고 있다.

美日 학생들의 週間 평균 공부 시간을 비교해보면 △국민학교는 미국 28시간, 일본은 49시간 △중학교는 미국 33시간, 일본은 66시간 △고등학교는 미국 32시간, 일본은 64시간이다.

<東京 李洛淵>